

축 사



이 철 우의원

친애하는 전국의 양돈인 지역 대표자 여러분!

오늘 양돈업계의 전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당면한 양돈산업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다짐하는 대회에서 입법부를 대표하여 본인이 축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주기적인 가격 등락현상 등 여러가지 불합리한 여건을 극복해 가며 온갖 지혜를 모아 양돈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또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를 올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업은 오랜 역사 기간에 걸쳐 주종산업으로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경제의 뿌리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소득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곡물 소비가 감소되고, 고급식품인 축산물의 소비량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어 선진국형의 식생활 형태로 바뀌어 감에 따라서, 농업의 주종목이 식량산업에서 축산물 등 성장작목으로 전환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축산업 특히, 양돈산업의 육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도농간의 소비격차를 줄이고 복지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 열심히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농업구조가 소농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급속하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 타산업 분야보다도 항상 뒤짐으로써,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업소득 증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 농어촌 부업단지 등 농업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현재 고전하는 양돈산업과 같이 어느 작목이 수지가 맞는다고 그 종목에 몰려서 생산과잉으로 값이 폭락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본인은 현재 국회 농수산분과위원장으로 특별히 양돈산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제6대 대한양돈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여러분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양돈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돼지 사육두수의 증가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돼지 값이 크게 하락하여 크나 큰 고충을 겪고 있음도 잘 알고 있으며,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측과 여러가지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양돈업의 주기적 가격파동 방지와 재벌기업의 신규양돈업 참여 불허, 기존 대규모 양돈장의 무제한 확장을 규제함으로써, 소규모 양돈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축산법을 개정하는 등 입법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돼지 값의 하락을 보더라도 아무리 철저한 법을 만들고 강력한 행정규제를 한다 할지라도, 이로써 양돈업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결과로 등장되었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양돈인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생산 및 수급조절방안을 세워서 실천하고, 양돈산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금후 양돈생산자의 권익옹호 단체인 여러분의 협회가 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양돈인은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고 정부당국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동안 전동용 대한양돈협회장으로부터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양돈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를 수없이 들어왔고 전국 양돈인의 건의를 받았습니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축산원자재의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감면 문제, 불합리한 유통의 획기적인 개선, 양돈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자조금제도의 입법화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양돈인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전국민의 노력과 정부의 고도 경제성장정책에 따라 80년초 30%~40% 오르내리던 물가를 한자리 숫자로 내렸습니다.

또 민족자본의 영세한 여건속에서도 국제사회의 신용을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국민의 절대빈곤 문제해결과 고용의 증대를 이룩하여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제적 기적을 이룬 나라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정속의 발전이나 혼란속의 퇴보나 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화합과 질서속에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양돈인 모두는 최선의 협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끝으로 경영의 합리화, 생산성의 향상, 돈육의 수요확대와 수출증대 등 여러분이 불황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뭉쳐서 해결함으로써 양돈불황을 이겨내고,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기를 희망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번영과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 11월 24일

국회 농수산분과위원장

국회의원 안 병 규

대독 이철우의원